

# 영어학습과 학습자의 심리

桂 明 - \*

## I

영어의 학력차는 교재, 교수법 등의 외적 요인과 학습자 각 개인에 내재하는 요인 즉, 지능 적성, 심리 등에 의해서 생긴다.

내적 요인 가운데 지능, 적성에 관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진척되어 있지만 학습자의 심리에 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학습자의 심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그 가운데서 두 세계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영어학습과 관련시켜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일반적으로 불안감은 학습을 방해한다고 생각되어지고 있다. 과연 생각 그대로일까? 비단 영어학습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지금까지 판명된 불안감과 학습일반의 관계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한국 대학생은 미국의 대학생에 비하여 불안감의 평균치가 높다고 보고되어 있다. 청년 전. 중기에 해당하는 중, 고교생들은 청년 후기의 대학생만큼 자기상(self-concept)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사소한 변화에 대하여 대학생들보다 한 층 더 높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추측된다. 학습자의 불안감이 지능과 관련하여 각 교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최초의 연구보고는 다음과 같다.

Significantly greater mean anxiety was found in the low IQ group than in the average or high,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not being significant. The correlation between anxiety and IQ was significant in the average IQ group, nearly significant in the low IQ group.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anxiety and reading achievement in the average IQ group, between anxiety and arithmetic achievement in the low IQ group, and between anxiety and language achievement in the average IQ group.

---

\* 人文大學 英語學 教授

1) Feldhusen, J.F. & Klausmeier, H.J., 'Anxiety, Intelligence, and Achievement in Children of Low Average, and High Intelligence; *Child Development*, 1962, 33. 403-409

이 연구의 대상은 국민학교 아동들이지만 불안감이 학습 전체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상식 심리학의 이론은 들어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지능이 낮은 학생은 불안감이 높다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는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지능이 보통인 학생이 독해력이나 언어달성도가 불안감과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조사결과는 영어교재, 교수법상 금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사실인 것이다.

두번째 연구보고서는 불안감과 학습내용의 복잡성에 관한 것이나<sup>2)</sup>, 피실험자를 높은 불안감과 낮은 불안감을 가진 두 집단으로 나누어 두 종류의 paired-associates learning(피 실험자가 Stimulus word 를 보고 미리 정해져 있는 response word 를 상기하는 실험)을 실시해 보았다. 두 집단 모두 (가) 연상 내용이 간단한 낱말의 학습(의미 내용이 유사한 낱말은 적다) (나) 연상이 복잡한 낱말의 학습(자극어끼리 또는 자극어와 그것에 대응하는 반응어의 의미가 유사해서 식별이 어렵다)을 한 결과 불안감이 높은 피 실험자는 (가)에서 불안감이 낮은 학생보다 성적이 좋았다. 한편 불안감이 낮은 학생은 (나)에 있어서 불안감이 높은 학생보다 학습결과가 좋았지만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세번째 연구 보고서는 불안감과 추상적 사고능력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즉, 불안감의 높고 낮음이 개념형성의 과정과 지능에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가에 관한 조사이다.<sup>3)</sup>

... anxiety and intelligence had interactive effects upon concept formation proficiency. This interaction was interpreted to show that high anxiety facilitated concept formation for high-intelligence Ss and impaired it for low-intelligence Ss.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intelligence, and concept formation was reflected in its most dramatic form in this study. Anxiety had apposite effects for high- and low-intelligence Ss.

이상 세가지 연구보고서에서 학습내용의 차이나 학생의 지능의 구조에 따라 불안감이 각각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영어학습의 태두리 안에 상술한 결과를 적용해 보기로 한다. 영어 어휘 학습과정은 어떤 영어의 단어(자극어)와 일치하는 한국어(반응어)를 학습하는 점에서 paired-associates learning의 그것과 매우 비슷하다. 어휘 수에 한계가 있는 중학교 시절에는 불안감이 높은 학생일지라도 다소의 노력만 한다면 배울 가능성이 있지만 고교시절이 되면 어휘수가 급증하고 낱말의 개념내용이 추상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불안감이 높은 학생은 학습효과가 저하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영어의 학력이 낮은 학생의 경우에는 어휘증가의 정도나 추상도가 높은

2) Deese, J., Lazarus, R.S., & Keenan, J., Anxiety Reduction and Stress in Learning,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953, 41, pp. 55-60.

3) Denny, J.P., Effects of Anxiety and Intelligence on Concept form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966, 72, p. 600.

낱말의 도입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단순히 어휘의 수를 감축한다고 해도 후술하는 Stengal의 논문속에 있는 바와 같이 근본문제의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다음에 문법 학습과 개념형성의 관계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문장을 생성 (generate) 하는 능력이 길러지는 과정과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과는 유사한 점이 있다. 바꾸어 말하면 개념형성능력은 문법능력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지능이 중간이나 하위이고 불안감이 높은 학생은 개념형성 능력도 낮아지므로 현재의 문법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음직하다.

Stengal의 의견은 그의 연구 보고서와 관련시켜 생각해 보면 매우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영어학습 자체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것들이 language shock 으로 발전해 간다고 한다. 또한 language shock 는 영어학습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여겨지고 있다. 불안감을 일으키는 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a. the problem of correct naming of objects and ideas.
- b. a word in the second language may carry a visual image that is quite different from the one carried by the first language.
- c. the use of a new language may cause a sense of shame which results from the feelings of insufficiency.
- d. the adult's fear of appearing comic.

a, b에 공통된 점은 의미의 파악이 정확하지 못한데서 생기는 불안감이다. (이를테면 영어 단어를 한국어로 매개시켜 기억하는 경우나 음성만에 의한 Pattern practice) 이런 종류의 불안감은 영어학습의 초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언어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존재한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c, d는 말하는 경우에 특히 해당된다. c에 관한 Arson의 지적은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sup>4)</sup>

... that one's native language forms an integral part of one's personality and self-image and that there is a strong, unconscious resistance to giving up the tokens of one's native language.

영어학습에 저항을 받는 학생, 한국어의 음을 영어 발음에 그대로 전이 (Transfer) 시키는 학생, 어느쪽이든지 다음 사항의 성격적인 측면과 관련지어 가면서 feelings of insufficiency를 일으키며 학습 저해에로 발전한다고 생각 되어진다.

4) Arson, H.I., The Role of Attitudes About Languages in the Learning of Foreign Languages, *Modern Language Journal*, 1973, p. 327.

## III

불안감이 학생 개인 안에서만 발생되는 심리작용이라고 규정한다면 감정이입(empathy)이란 각 개인의 사회화와의 관련성을 의미하는 성격의 하나의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 Guiora는 empathy를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리고 있다.<sup>5)</sup>

Empathy is a process of comprehending in which a temporary of fusion of self-objects boundaries, as in the earliest pattern of object relation, permits an immediate emotional apprehension of the affective experience of another, this sensing being used by the cognitive functions to gain understanding of the other.

Social perspectiveness or sensitivity, the ability to emphasize with the thoughts and feeling of others가 영어학습의 진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Empathy는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한다면 ego flexibility(Guiora는 Permeability of ego boundaries라고 말하고 있다.)이다. 심리발달 단계에 있어서, 자기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자아개념(Self-concept)이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외계와의 구별이 서서히 명확해지는 것이다. 일단 자신과 외계와의 경계가 고정되고 유연미(flexibility)가 없다면 자신의 내부에 형성된 세계를 타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새로운 환경(영어)에 대한 적응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도상에 있어서 만약 ego flexibility가 양성되어 진다면 발음 뿐만 아니라 영어학습이 진보(새로운 세계에의 적응)한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Guiora의 실험 결과에서는 가설을 부분적으로 밖에 증명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mpathy는 학습지도상 고려해야할 중요한 요소이며 또한 불안감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언어, 문화등이 homogeneous한 면이 많기 때문이다. 이 사회적 현상은 language shock의 c, d가 원인으로 된다고 말할 수 있다. Language shock에 의해서 발생한 불안감(a, b)은 학생의 기존 인지구조에 대해서 부조화를 만들어 내었으며(c, d) 그 결과 학생은 기존의 인지 체계에 밀려나 버리게 된다. 학습거부를 비롯하여 한국어로 번역하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 학생, 아무리 tape로 연습해도 한국어의 음을 고집하는 학생, 어느 것이든지 동질의 문화배경에 의해서 구성된 인지구조 안에서 외부로부터의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ego flexibility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학습은 갖가지 곤란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ego

5) Guiora, A.Z., Brannon, C.L., & Dull, C.Y., Empathy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Language Learning*, 1972, 22, p. 113.



flexibility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불안감을 일으키는 학습방법은 피하는 것이 좋다.

영어 교사는 학생의 문법실력이나 독해력을 기르는데 고심하지만 단순히 머릿속에서 영어를 지식으로서 흡수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할 수는 없다. 새롭게 배우는 언어를 통해서 그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에 대한 자신의 태도의 변용(empathy)을 목표로 삼는 것이 외국어 학습의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empathy를 어떻게 길러나갈 것인가를 수업하는 가운데에서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지만 적어도 Grammar-translation을 통해서도 empathy를 기르는 것은 무리라고 말할 수 있다. (anxiety의 연구는 Arson의 지적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태도의 변경이란 자신의 가치관을 모두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종래의 가치체계에 새로운 가치관이 더하여 짐으로써 피차의 차이점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새로운 가치체계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 IV

Brown은 학습지도상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인지의 형을 들고 있다.<sup>6)</sup> 학생의 인지의 형을 알고 있으면 교재작성 편집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서 두 세개의 연구 예를 인용하여 보기로 한다.

인지의 형은 기억과 직접 관계가 있다. 얼핏 보기에 지능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의 인상을 받지만 a combination of affect and cognition인 것이다. 인지의 형의 갖가지 형태가 성격의 다른 측면과 제휴하여 변화하며 학습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예를들면 문법학습을 할때 문법규칙을 설명하고 나서 연습으로 옮겨 간다고 해도(연역법) 반드시 클라스 전원이 그 문법 사항을 이해 한다고는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학생 각자의 인지의 형이 다르기 때문에 기억과정 안에서 문법 규칙의 의미연결이 잘 되지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첫번째 연구의 예는 reflection-impulsivity의 관계에 관한 보고이다. 성급한 어린이에게는 읽는 힘을 테스트한 결과 숙고하는 형의 어린이 보다 잘못이 많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른 실험에서 Kagan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sup>7)</sup>

Impulsive children make more errors in inductive reasoning problems because they do not pause to evaluate the quality of their inferences. The impulsive child responds quickly in situations where inferences are required; he seems to report the first reasonable idea that occurs to him. His failure to censor or to evaluate critically the quality of his inference may be due to too tastes, on the

6) Brown, H.D., Affective Variable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Language Learning*, 1973, 23, 231-244.

7) Kagan, J., Conceptual Impulsivity and Inductive Reasoning, *Child Development*, 1966, 37, p.594.

otherhand, the impulsive child may have difficulty placing effective inhibitions on tendencies toward action. He may find it hard to block the urge to blurt out an answer even though he is not sure it is correct and even though he would like to be correct. On the other hand, informal observations indicate that a fair proportion of impulsive children do not seem anxious about a mistake.

The possibility of being wrong does not elicit as much apprehension as it does in the majority of the reflective children.

두번째 인용의 예는 “Levelling”과 “Sharpening”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수용한 정보를 정리하고 체계화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으로 성격과 관련성이 있다고 실험자는 가정하고 있다. “Levelling”이란 정보가 기억과정에서 체계화 될 때 적어도 불필요 내지는 모순되어 있는 것 같은 정보부분을 제거하고 요점을 압축하여 재생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간소화 하는 경향을 말한다. “Sharpening”이란 정보의 원형을 distract 함이 없이 될 수 있는 한 상세하게 기억하고 체계화 시키는 경향을 말한다. 실험자는 “Levelling”과 “Sharpening”은 같은 차원의 양극이라고 생각하며 지각과 기억의 동화작용의 정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정보 수용을 control 하는 방법으로 personality organization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defence mechanism 가운데 억압(repression)이 levelling에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어학습에 관해서 말한다면 문형을 습득할때 교재의 내용, 양, 그리고 교재를 배열하는 점에서 상기한 실험 결과를 응용할 수 있을듯 싶다. 또 하나의 예로서 간단한 線圖의 제시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불안감이라는 요인은 인지의 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불안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story를 듣고 그것을 재생하는 경우 지능에 관계없이 levelers는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기억이 곤란하게 된다. 한편, sharpeners는 시간이 상당히 경과해도 story의 내용을 세밀히 기억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인지의 형은 엄밀하게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르기 마련이지만 일반적인 경향은 있다. 따라서 학생의 성격의 여러 모습을 파악할 수 있으면 교재 제시 drill의 결과 양, 더 나아가 지명에도 유익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성적이 낮은 학생은 중이나 상위의 학생에 비하면 불안감이 높고 성급한 경향이 강하므로 욕구불만을 될 수 있는한 일으키지 않도록 지도법을 고안해 내는것이 바람직하다. 필자가 현재까지 시험해 본 방법으로서 speaking에 상당한 비중을 놓고 시청각 교재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학습 방법이 예상 이상으로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북돋아 주었다. 이것은 empathy와 관계가 있음은 두 말할 할 나위가 없다.

## V

이상 세 항목 이외에 성격과 영어학습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극기심, 의퇴심, 내향(외향) 등 많다. 그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측면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Empathy 에서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자기상(Self-image)에 관한 것으로 학생은 심리 발달 과정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지각하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난 후에 self-image 가 높고 낮음에 따라 영어교육에 영향을 주는듯 싶다. 불안감이 한정된 자극(정보)이나 즉흥적인 심리 작용이 아니라 Self-image 는 학생 개인의 전 가치체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Ross Stanger 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sup>8)</sup>

Self-image is a kind of sure of all one's experiences of himself. It includes an image of the body (strong or weak, dexterous or clumsy, handsome or ugly) of the intelligence (bright or dull), of the emotions (affectionate, timid, irritable), of motivation (ambitious, persistent, etc.)... person's decisions depend on his self-image. If he perceives himself as stupid, he will avoid intellectual challenges, even though mental test shows him to be superior.

Self-image 의 높고 낮음에 관해서는 필자가 행한 실험의 결과 영어 학습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 VI

본고에서 필자는 극히 제한된 성격의 측면을 개관해 보았다. 이들의 변수가 필자가 접해온 학생들에게 흔히 볼 수 있었던 것이고 영어학습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개관해 본 여러 연구의 예에서 보는바와 같이 학생들이 정의(情意)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문법, 역독이 건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어느정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역독방법에 관해서 Stengal 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sup>9)</sup>

...the desire to obtain an accurate correspondence between an object and the world signifying that object is heightened in adulthood and especially in obsessional neurotic disorders. Thus a too-intense demand for accuracy may slow down the acquisition of a new language.

8) Stanger, R. & Solley, C.M., *Basic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1970.

9) Dimsleur, P., Mosberg, L. & Morrison, A.L., Student Factors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Modern Language Journal*, 1962, 46, p. 169.

Grammar-translation 을 고집하여 신경증적 징후를 조장하는 역할을 교사가 떠 맡을 필요는 없다.

Ego flexibility 를 증대시키고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심리요법 가운데서 group therapy 의 모델을 영어 학습(Speaking)에 응용하면 영어 학습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1. Arson, H.I., The Role of Attitudes About Languages in the Learning of Foreign Languages, *Modern Language Journal*, 1973.
2. Brown, H.D., Affective Variables in the Second Language Learning, *Language Learning*, 23, 1973.
3. Deese, J., Lazarus, R.S., & Keenan, J., Anxiety Raduation, and Stress in Learning,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46, 1953.
4. Denny, J.P., Effects of Anxeity and Intelligence on Concept Form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72, 1966.
5. Jeldhusen, J.R. & Klausmeier, H.J., "Anxiety, Intelligence, and Achievement in Children of Low, Average, and High Intelligence," *Child Development*, 33, 1962.
6. Guiora, A.Z., Brannon, C.L. & Dull, C.Y., "Empathy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Language Learning*, 22, 1972.
7. Kagon, J., "Conceptual Impulsivity and Inductive RReasoning," *Child Development*, 37, 1966.
8. Stanger, R. & Solley, C.M., *Basic Psychology*, McGraw-Hill, New York, 1970.
9. Pinsleur, P., Mosberg, L.A. & Morrison, A.L., "Student Fractors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Modern Language Journal*, 46, 1962.

**ABSTRACT**

**The Learner's Psychology and TESOL**

Kye, Myung-II

This study deals with some psychological factors that may affect English language learning. The factors that are reviewed and discussed here are anxiety, empathy, self-image, and the cognitive types of the learner. It is argued in this paper that those psychological factors play significant roles in English learning situations and thu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a more effective English teaching.